“광주 미래 AI·모빌리티·RE100, 세계 흐름 부합”

‘CES 2025’ 광주공동관 개관

강 시장, 제주항공 참사에 방문 취소
온라인 참석…“광주의 힘 세계 전파”
홍보관 2곳에 AI 기업 등 15곳 참가

강기정 광주시장이 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CES 2025 광주공동관 온라인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세계 최대 전자·정보통신(IT)기술 전시회 ‘CES 2025’ 개막과 함께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광주공동관’과 ‘통합한국관 내 광주관’의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CES 2025’ 광주공동관 개관식을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 7일 오후 2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온라인 개관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부시장,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현지에서는 박성철 인비즈 대표, 송종운 이-솔테크 대표 등 참가기업과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하상용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병인 전남대학교 교학부총장과 학생들, 김동진 광주대학교 총장, 박세진 금호고속 상무, 양향자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당초 강 시장 등이 포함된 광주대표단을 꾸려 ‘CES 2025’ 참가를 계획했으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을 위해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담당 실무자를 중심으로 규모를 최소화했다.

강 시장은 온라인 영상을 연결해 개관식과 광주공동관 참가기업 부스를 일일이 살펴봤다. 광주공동관에는 ㈜인비즈, 주식회사 정션메드, ㈜트위그팜, 이-솔테크, ㈜아트랩, ㈜인디제이, ㈜호그린에어, ㈜리버트리, 주식회사 유니컴퍼니, 에코피스주식회사, ㈜블루캡슐 등 11개사가 우수 기술·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강 시장 등은 참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회사와 전시 제품·기술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투어를 진행했고, “광주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시장에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이번 ‘CES 2025’에 광주공동관 11개사, KOTRA 통합한국관 내 광주관 4개사 등 15개사를 지원해 참가하고 있다. CES 혁신상 신청 지원을 포함해 비즈니스 교육, 비즈 매칭 등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며, 전시 참가 이후에도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광주시 지원 기업 외에도 지역기업 21개사 등 총 36개사가 ‘CES 2025’에 출전, 우수한 기술역량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CES 참가와 관련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인공지능(AI)이 핵심으로, ‘대한민국 AI 대표도시 광주’가 그동안 쌓아온 AI 신제품·기술을 세계시장에 알리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공동관은 바이어와 방문자들의 편의와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전면에 안내부스를 설치해 전시관 안내와 광주시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며, 공간 내부에는 기업 홍보와 피칭 공간까지 알차게 꾸렸다.

이 곳에서는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한 지역기업들의 소개와 혁신제품들을 선보인다. ‘주식회사 정션메드’의 음성(목소리)를 활용한 시니어 건강관리, ‘㈜트위그팜’의 맞춤형 다국어 제공 서비스 플랫폼, ‘㈜아트랩’의 피부 등 AI뷰티 솔루션, ‘㈜리버트리’의 전 세계 도서정보 격차 제로화를 목표로한 실시간 사서업무 지원 솔루션 등이 전시되고 있다.

강 시장은 광주공동관 온라인 투어 이후 삼성C-LAB관을 찾아 ‘CES 2025’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고스트패스와 혁신상을 받은 마인스페이스의 전시 제품을 둘러봤다.

강 시장은 “CES 2025는 AI(인공지능), 모빌리티 등이 중심이고, 이는 광주 미래산업 방향이 세계적 흐름과 정확히 부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실력도 매년 축적되고 있는 만큼 성장동력이 될 것을 확신한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만큼 AI 대표도시 광주의 힘을 세계에 많이 알려 달라”고 참가기업들을 격려했다.

한편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시회다. 매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며 세계적 혁신 기술과 제품, 글로벌 시장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CES 2025’ 주제는 ‘몰입(Connect, Solve, Discover. Dive in)’으로 기술과 기술, 기술과 인간을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한랭질환 주의…예방수칙 당부

올해 8명…고령층 절반 이상
“한파 대비 건강수칙 지켜야”

전남도는 ‘2024-2025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8명의 한랭 질환자가 신고된 만큼 외출 시 얇은 옷 겹쳐입기, 장갑·목도리 착용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다.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45개소를 통해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월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전남에서는 6일 기준 현재 총 8건이 신고됐으며, 신고 환자 중 50%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동상이 25%, 저체온증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전남지역 곳곳에 대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추위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외출 전 날씨 정보 확인, 한파 시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 착용 △생활습관으로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및 영양분 섭취 △실내환경은 적정 온도·습도 유지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500억 융자 지원

1% 저금리…농어업인 경쟁력 강화
24일까지 읍면동서 대상자 접수

전남도는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500억원을 1% 금리로 융자 지원키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읍면동서 사업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경영 환경 제공을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농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해 안정적 사업 운영 및 시설 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이나 전남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법인이다. 개인은 1억원(학사농업인 2억원), 법인은 2억원(가공·유통회사 10억원), 저온저장고 설치 자금은 5억원 한도에서 1% 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농지 구입, 증·양식 등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종묘·종패, 원료 구입 등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특히 학사농업인은 3년 거치 후 10년 균분 상환이 가능해 농어업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융자 지원을 바라는 농어업인이 주소지나 사업장 관할 읍면동에 필요 용도에 맞게 신청하면 시군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2월7일까지 융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돕는 정책인만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농어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촌진흥기금 2364억원을 조성했으며, 매년 450개 농가에 5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해 농어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여성친화마을 조성 참여 공동체’ 공모

틈새돌봄·여성 일자리 지원

광주시는 ‘2025년도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할 마을공동체를 오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은 ‘성평등한 마을이 모여 성평등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했다. 지금까지 79개 성평등 마을을 발굴·조성하는 등 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 유일하게 5개 자치구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원대상은 광주에서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로, 광주시 또는 자치구에서 여성친화마을(성평등마을 등 유사 명칭) 경험이 1회 이상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 8개 안팎의 마을을 선정해 마을 틈새돌봄, 지역 여성일자리 등 마을 실정에 맞는 성평등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체는 오는 27일까지 광주시 여성가족과로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13-2274)

광주시는 여성친화마을 공모사업에 관심있는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 사전상담을 진행한다, 사업에 관심 있는 마을공동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설명과 신청서 작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립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인재 양성·국제 경쟁력 강화
유학생 행정 절차 간소 지원

전남도립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에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의 우수성과 국내 학생 국제화 역량 강화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교육부가 지난 2011년 도입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불법 체류율, 유학생 관리체계, 국제화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국제화 역량을 보유한 대학에 부여된다. 인증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도립대학교는 이번 인증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국제적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외국인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등으로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장헌범 직무대행은 “이번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은 대학의 국제화 노력과 유학생 관리체계가 우수함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목포대와의 통합을 통해 국제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의 통합은 현재 교육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두 대학은 통합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계기로 통합 후 국제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전남도립대는 교육국제화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사회와 세계를 잇는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